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 VIP 리포트

## ■ 체감경기 회복 지연

-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체감경기 회복 지연

-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

Executive Summary .....	i
1. 체감경기 지표의 개선 지연 .....	1
2. 경제정책 관련 국민의식 조사 .....	2
3. 시사점 .....	8
【부록】 제 12회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개요 .....	10
제 12회 경제적 행복지수의 부문별 추이 .....	11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명 .....	16
【HRI 경제 통계】 .....	18

## &lt; 요약 &gt;

## ■ 체감경기 지표의 개선 지연

-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체감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삶의 질도 OECD 국가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3.6%에서 2013년 1/4분기 0.3%로 급락했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도 36개국 중 27위로 낮는데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 경제정책 관련 국민의식 조사

## ○ 낮은 체감경기

- 2013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91.1%는 가계빚 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경기 회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의 9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단지 8.9%만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연령별로는 30~40대, 3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경기 회복을 더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가계빚 증가(34.7%), 자산가치 하락(23.0%), 일자리 부족(20.9%) 등의 순으로 꼽혔음
-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등이 필요함
  - 2013년 하반기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12.5%, 수출 성장세 지속 9.4% 등이 뒤를 이었음
  - 여성, 직장인,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생활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꼽았음

## ○ 새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의지 높아

- 우리 국민들은 새정부 경제 정책 중 '고용 안정'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새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33.3%는 '고용안정'을 29.3%는 '복지 서비스 향상'이라고 응답함
- 우리 국민들의 64.7%는 임금피크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됨
  - 전체 응답자 685명 중 64.7%가 임금피크제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27.6%만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연봉감소와 조기 퇴직 후 제 2인생 시작을 비슷하게 꼽았음
  - 특히, 남성,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들이 임금피크제 참여의사가 더 높았음
- 우리 국민들의 61%는 시간제 일자리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차별 가능성과 낮은 소득이 시간제 일자리를 회피하는 원인으로 작용
  - 총 응답자 1004명 중 61%가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30.9%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조사됨. 참여 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은 차별 가능성과 낮은 소득을 원인으로 꼽았음
  - 기혼자, 주부, 40~50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 경제 부진에도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상승

- 경기 부진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1.4로 전기 대비 1.0p 상승함
  -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3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안정,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 하반기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하락

- 2013년 하반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5.8로 전기대비 2.8p 하락 전환되어 우리 국민들의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 시사점

- 첫째, 우리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못하고 있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만큼, 정부는 생활-체감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계빚 증가는 우리 국민들의 경기 회복감을 가장 낮추는 원인인 만큼 가계 빚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하반기 전력난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택시요금 인상, 환율급변동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각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복지 확대가 찬반 논쟁으로 번지지 않고 보편적 인식 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둘째,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임금 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등에 대해 참여 의사는 있지만 성별, 세대별, 소득 수준별, 직종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함
  - 임금 피크제는 남성,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참여 의사가 더 높고, 시간제 일자리는 기혼자, 주부, 40~50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만큼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절히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는 고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함
  
- 셋째, 경제적 행복감은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만큼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함
  - 특히,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 등도 요구됨

## 1. 체감경기 지표의 개선 지연

○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체감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삶의 질도 OECD 국가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지출의 감소세 지속,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등 우리 국민들의 체감 경기 지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3.6%에서 2013년 1/4분기 0.3%로 급락했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2012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도 내수 부진 등으로 2013년 1월~5월 평균 1.3%로 안정된 반면,기대인플레이션은 2.9%로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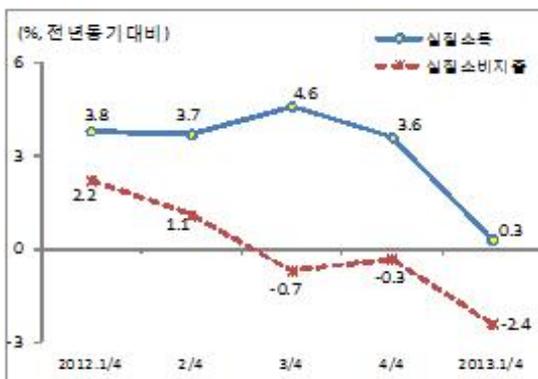
-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BLI)<sup>1)</sup>도 36개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

· 한국은 11개 세부지표 중 직업 25위, 삶의 만족도 26위, 일과 삶의 균형 33위 등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반면, 시민참여 3위, 교육 4위 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특히,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10.5배로 소득불균형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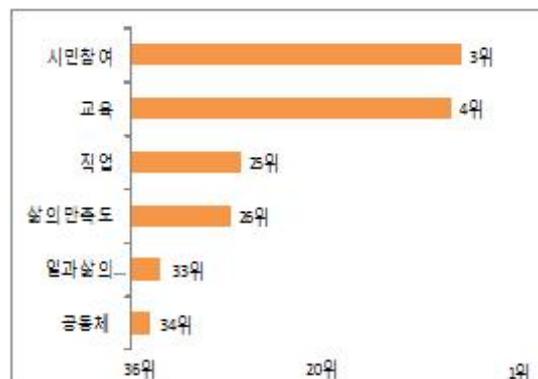
○ 이에 우리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경기,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및 경제적 행복감의 수준을 평가해 보고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

< 실질소득과 소비지출의 증가율 추이 >



자료: 통계청.

<OECD 삶의 질 지수의 세부지표 순위>



자료: OECD.

1) OECD의 삶의 질 지수는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삶의 만족도 등 11개 지표를 OECD 회원국에 브라질, 러시아를 추가하여 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평가

## 2. 경제정책 관련 국민의식 조사<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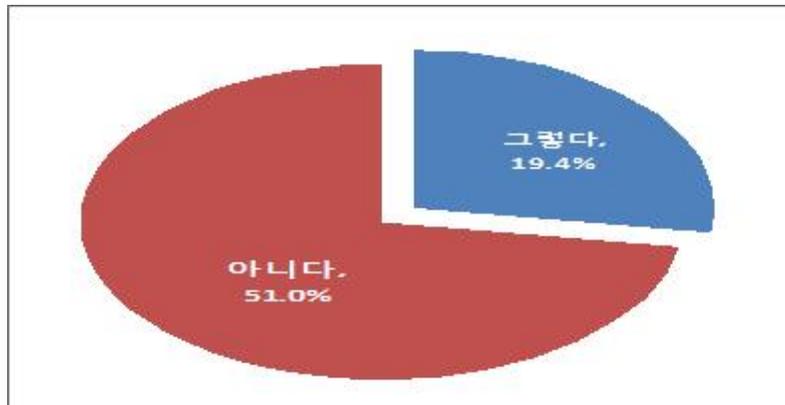
### 1) 낮은 체감경기

○ 2013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91.1%는 가계빚 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귀하께서는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 우리 국민의 91.1%는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단지 8.9%만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30~40대, 소득별로는 3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자산별로는 1억 원 미만의 저소득자와 2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체감도가 낮았음
- 학력별로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경기회복을 더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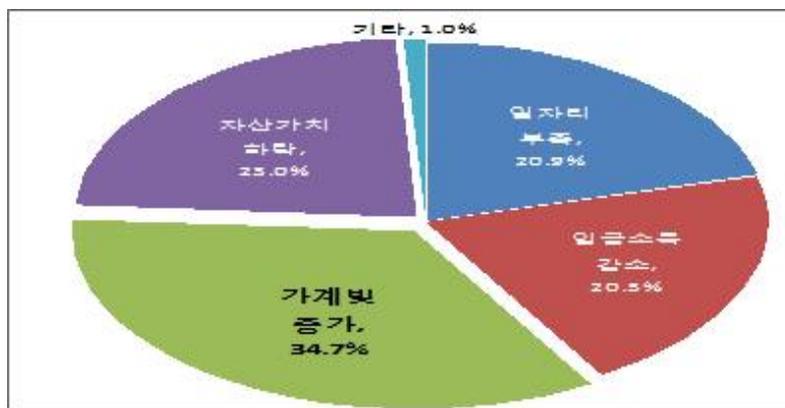
<경기 회복의 체감도 여부>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 가계빚 증가(34.7%)가 경기 회복감을 가장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힘
- 또한, 자산가치 하락(23.0%), 일자리 부족(20.9%), 임금소득 감소(20.5%)도 우리 국민들의 경기 회복감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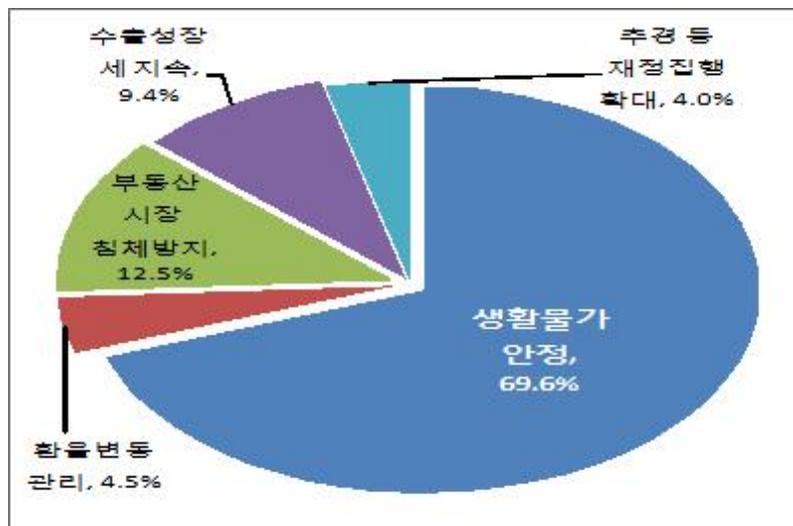
2) 조사개요는 별첨 1 참조.

○ 우리 국민들은 **생활물가 안정 등을 통해 체감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

- 2013년 하반기 정부가 민생경제,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부문은?

- 2013년 하반기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활물가를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총 1004명 중 699명(44.8%)으로 가장 많았음
- 특히, 여성, 직장인, 저소득자, 저액자산가 및 저학력자들이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음
- 그 외에 부동산 시장 침체방지 126명(12.5%), 수출 성장세 지속 94명(9.4%) 순으로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문으로 꼽았음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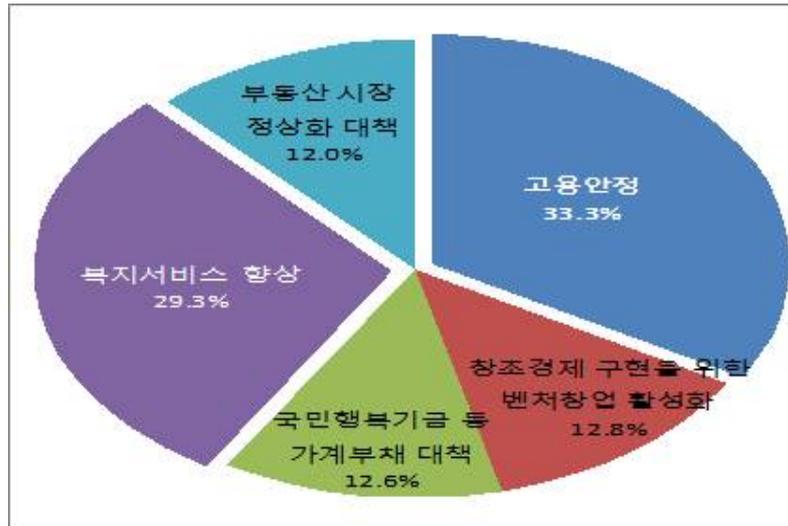
## 2) 새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국민참여의지 높아

○ 우리 국민들은 새정부 경제 정책 중 **'고용안정'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음**

-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은?

- 전체 991명 중 330명(33.3%)은 고용안정을, 290명(29.3%)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새 정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함
- 한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는 127명(12.8%), 국민행복기금 등 가계부채 대책은 125명(12.6%),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은 119명(12.0%)으로 세가지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비슷하였음

<새정부의 가장 기대되는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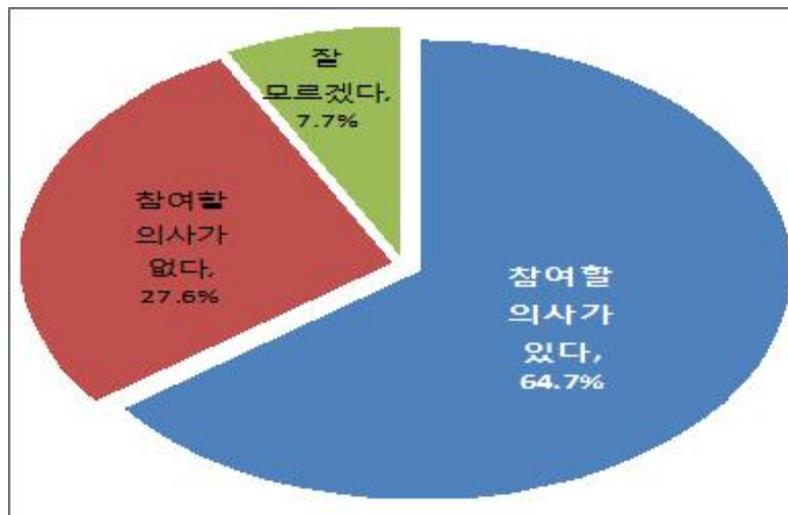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의 64.7%는 임금피크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귀하께서 임금피크제에 해당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전체 응답자 685명<sup>3)</sup> 중 64.7%인 443명이 임금피크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27.6%인 189명이었음
- 남성,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들이 참여 의사가 더 높았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들은 연봉감소(50%)와 조기퇴직 후 제 2인생 시작(50%)을 원인으로 꼽았음

<임금피크제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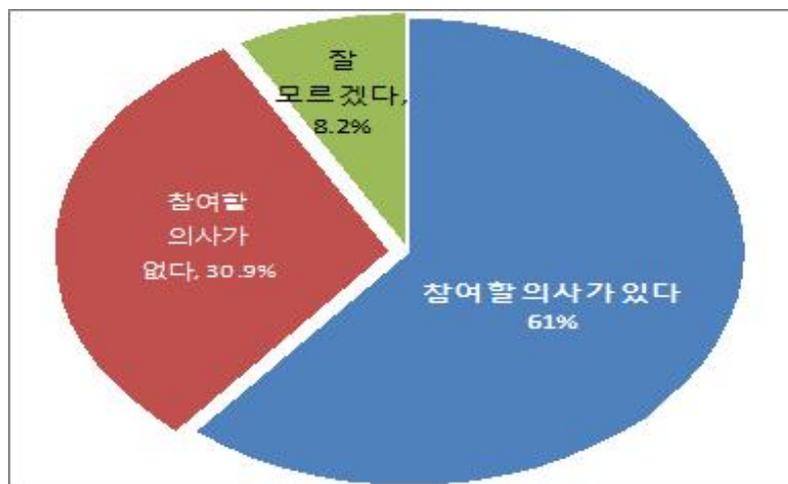
3) 설문 대상자 중 자영업자, 주부들은 임금피크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음

○ 우리 국민들의 61%는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차별 가능성과 낮은 소득은 시간제 일자리를 회피하는 원인

- 귀하께서는 시간제 일자리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는?

- 총 응답자 1,004명 중 61%인 612명이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됨. 반면, 30.9%인 310명은 참여할 의사가 없고, 8.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 기혼자, 주부, 40~50대, 저소득층, 저액자산가 및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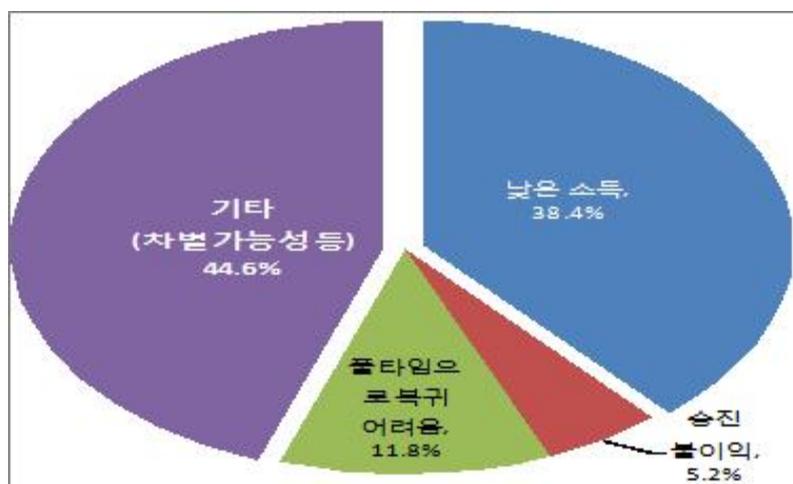
<시간제 일자리 참여 의사>



-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그 원인은?

-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 305명 중 차별 가능성 등 기타 의견이 44.6%, 낮은 소득이 38.4%, 풀타임으로 복귀 어려움 11.8%로 조사됨
-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남성, 직장인, 30대, 저액자산가 및 대졸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

<시간제 일자리 참여하지 않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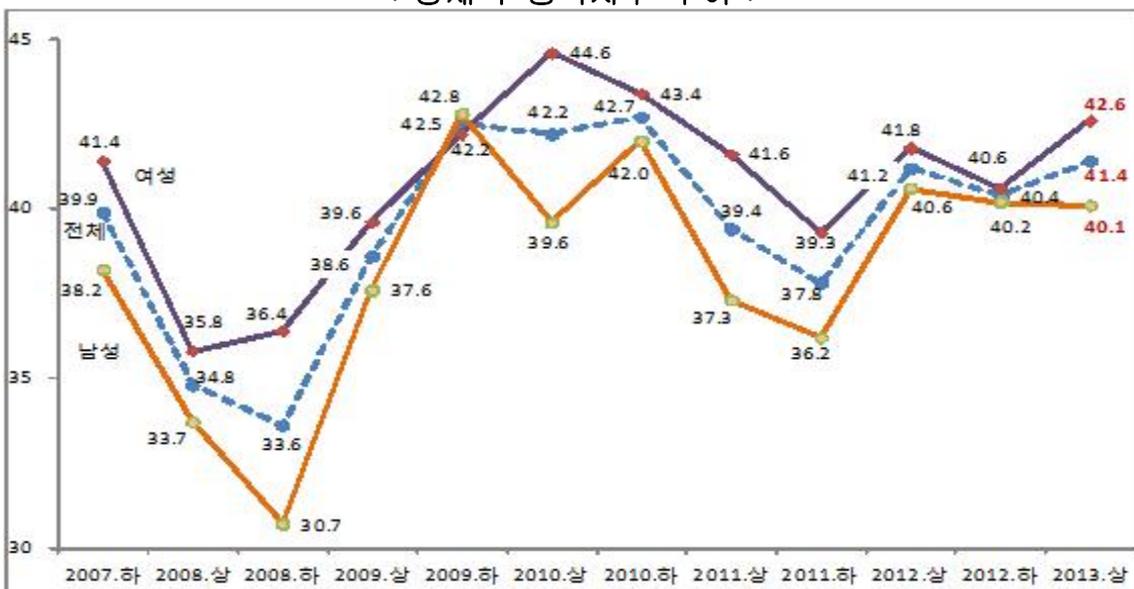


### 3) 경제 부진에도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상승

○ 경제적 행복지수<sup>4)</sup>는 경기 부진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2013년 1월)보다 1.0p 상승한 41.4를 기록.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5.8으로 전기대비 2.8p 하락하여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늘어남

- 2012년 하반기(11회) 조사에서 40.4로 하락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2013년 상반기 12회 조사에서는 국내 경기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1.0p 상승
-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3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안정,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가 42.6로 전기대비 2.0p 상승한 반면, 남성은 전기대비 0.1p 하락한 40.1을 기록함
  - 이에 남녀 간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도 2.5p로 확대됨
- 2013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미래 경제적행복 예측지수는 2013년 상반기(12회) 전기대비 2.8p 하락한 125.8를 기록. 이는 2013년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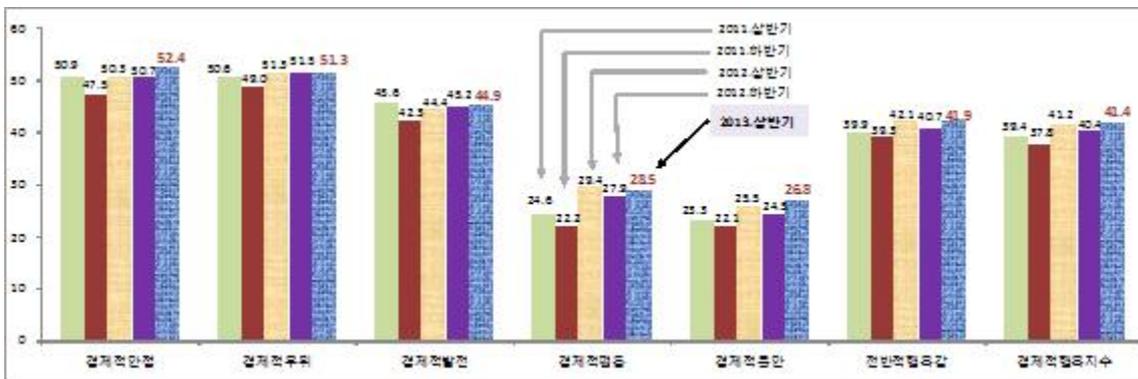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구성요소,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은 별첨3 참조.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요소 중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는 높았지만, 경제적 평등과 불안은 여전히 경제적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적 안정 지수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제적 우위도 높아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했지만,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 수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 경제적 행복지수의 각 구성요소들 중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은 1.7p, 전반적 행복감 1.2p, 경제적 평등 0.6p, 경제적 불안 2.4p 상승했지만, 경제적 우위 0.2p, 경제적 발전 0.3p 소폭 하락함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



- 2013년 하반기에 대한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125.8로 낮아져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3년 '상저하고'의 경제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기대비 28p 하락
- 2013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1.0p 상승한 41.4를 기록.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2.8p 하락한 125.8을 기록하면서 2013년 하반기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 추이 >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남 성	127.8	139.8	142.8	140.6	122.0	114.8	115.6	126.0	122.0
여 성	129.6	148.2	149.6	153.8	137.4	135.8	126.2	131.2	129.6
전 체	128.8	144.2	146.4	147.6	129.8	125.6	121.0	128.6	125.8

5)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3.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3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미혼의 30대로 공무원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
- 우리 국민들 중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거 트렌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저학력의 60대 이상의 기타/무직 종사자임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전기대비 큰 폭으로 낮아져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냄

○ 2013년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첫째, 우리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못하고 있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만큼, 정부는 생활·체감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계빚 증가는 우리 국민들의 경기 회복감을 가장 낮추는 원인인 만큼 가계 빚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하반기에도 전력난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택시요금 인상, 환율 급변동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각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복지 확대가 찬반 논쟁으로 번지지 않고 보편적 인식 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둘째,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임금 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등에 대한 참여 의사는 있지만 성별, 세대별, 소득 수준별, 직종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함
  - 임금 피크제는 남성,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참여 의사가 더 높고, 시간제 일자리는 기혼자, 주부, 40~50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만큼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절히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는 고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함
  
- 셋째, 경제적 행복감은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만큼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함
  - 특히,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 등도 요구됨 **HRI**.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02-2072-6217, chjss@hri.co.kr)

<별첨 1. 제 12회 경제적 행복지수의 조사 개요>

- 1) 조사 기간 : 2013년 6월 5일 ~ 2013년 6월 14일(7일간)
- 2) 조사 방식 : 전화설문 조사
- 3)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4명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
- 4) 오차 범위 : 95% 신뢰 수준에서 ±3.09%
- 5)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혼	미혼	기타
명	499	505	120	256	251	255	121	701	274	29
%	49.7	50.3	12.0	25.5	25.0	25.4	12.1	69.8	27.3	2.9

구분	직업별						소득수준별					
	직장인	자영업	주부	전문직	공무원	무직/기타	2천 미만 만원 미만	2천-4천 만원 미만	4천-6천 만원 미만	6천-8천 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명	456	203	165	5	91	82	299	443	158	54	23	25
%	45.4	20.2	16.4	0.5	9.1	8.2	29.8	44.1	15.7	5.4	2.3	2.5

구분	자산규모별						학력별			
	1억 미만	1억-3억	3억-5억	5억-10억	10-20억	20억 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명	401	361	134	56	28	18	92	257	602	53
%	39.9	36.0	13.3	5.6	2.8	1.8	9.2	25.6	60.0	5.3

구분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명	73	62	62	62	62	62	62	62	63	62	62	62	62	63	62	61
%	7.3	6.2	6.2	6.2	6.2	6.2	6.2	6.2	6.3	6.2	6.2	6.2	6.2	6.3	6.2	6.1

<별첨 2. 제 12회 경제적 행복지수의 부문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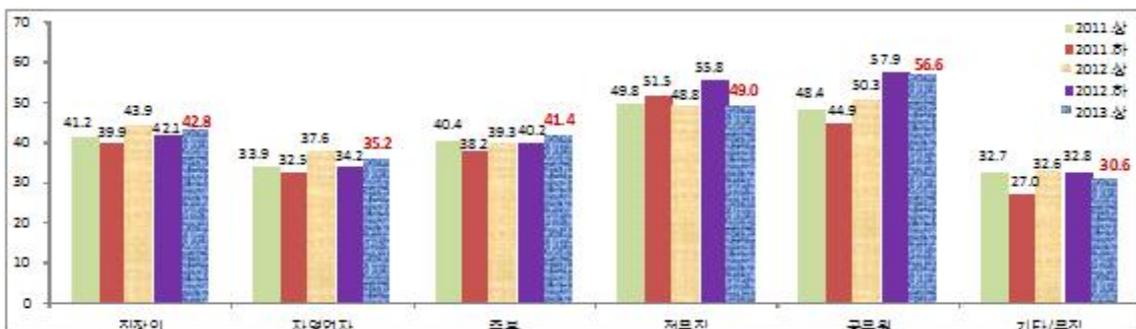
○ (직업별)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고, 기타/무직군이 가장 낮음

- 공무원,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지만 전기대비로는 모두 하락
  - 2013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공무원과 전문직으로 조사됨. 하지만 공무원이 전기대비 1.3p 하락한 56.6, 전문직도 전기대비 6.8p 하락한 49.0을 기록하며 경제적 행복감은 모두 낮아짐
  - 반면,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1.0p 상승한 35.2, 직장인도 0.7p 상승한 42.8, 주부도 1.2p 상승한 41.4를 기록함. 이들 직업군의 경제적 행복감은 전기대비로는 소폭 상승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공무원, 직장인에서 소폭 상승에 그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전문직, 공무원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주부, 기타/무직군은 2013년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비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행복지수	42.8	0.7	35.2	1.0	41.4	1.2	49.0	-6.8	56.6	-1.3	30.6	-2.2
경제적 행복 예측	136.2	1.6	120.2	-1.0	107.8	-16.6	160.0	-40.0	156.0	1.8	80.4	-20.8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연령별) 5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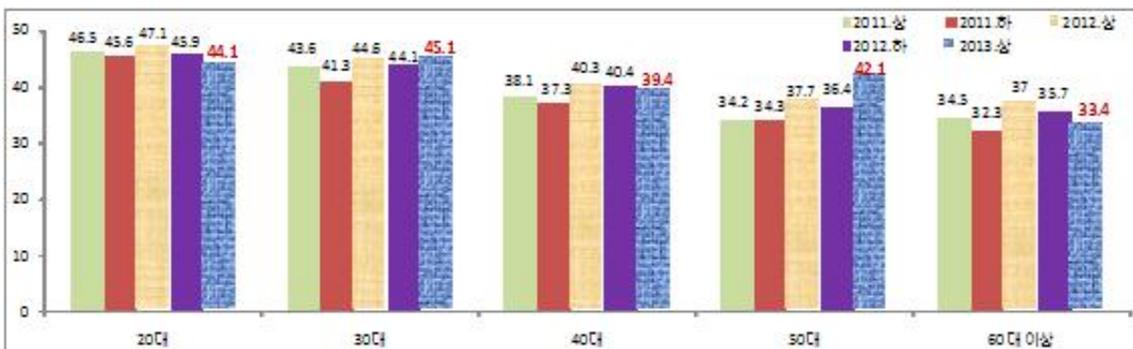
- 20~3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으나 50대에서 전기대비 큰 폭으로 개선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 전기대비 1.0p 상승한 45.1을, 20대는 1.8p 하락한 44.1을 기록

- 한편, 경제적 행복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5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5.7p 높아진 42.1를 기록하면서 평균보다 상승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50대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며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이 많아짐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30대가 전기대비 6.0p 하락했지만 150.6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도 148.4로 높아 젊은 층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음
  - 한편,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50대는 미래 경제적 행복예측 지수도 전기대비 34.0p 상승한 131.0으로 평균대비 높아져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이 증가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행복지수	44.1	-1.8	45.1	1.0	39.4	-1.0	42.1	5.7	33.4	-2.3
경제적 행복 예측	148.4	2.4	150.6	-6.0	116.0	-21.8	131.0	34.0	59.6	-40.4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소득별) 저소득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낮지만 고소득층에서도 경제적 행복감의 격차가 확대됨

- 고소득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모두 하락
  - 고소득자의 경제적 행복감은 저소득자보다 높지만 8천~1억 원 미만이 전기대비 3.5p 하락한 53.6을 기록하였고 1억 원 이상도 3.0p 하락한 67.6를 기록. 고소득자 간에도 경제적 행복감 격차가 14p에 달했음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은 2천만원 미만으로 31.4를 기록했으나 전기대비로는 2.7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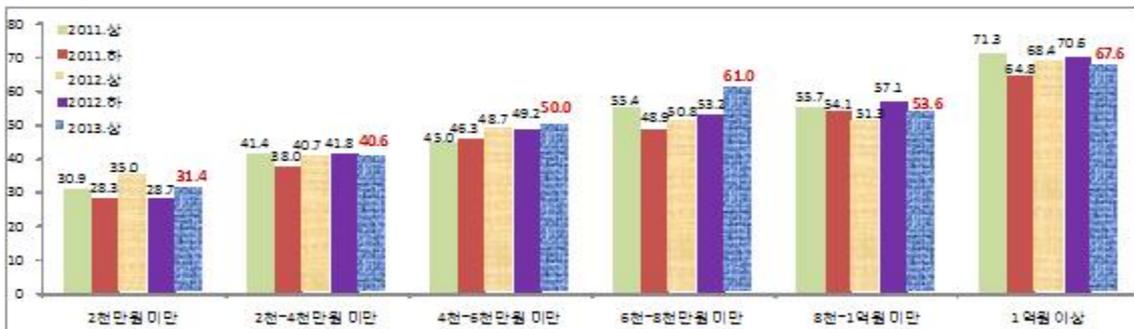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고소득자들은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억 원 이상 고소득자가 전기대비 30.5p 상승한 168로 가장 높았음. 반면 8천~1억원 미만은 전기대비 21.6p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냄
- 또한, 6천만원 미만의 전 소득 계층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가 확대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행복지수	31.4	2.7	40.6	-1.2	50.0	0.8	61.0	7.8	53.6	-3.5	67.6	-3.0
경제적 행복예측	103.0	-3.8	129.8	-5.6	139.2	-0.4	159.2	3.6	130.4	-21.6	168.0	30.5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자산별) 고액자산가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하락

- 고액자산가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은 높으나 전기대비로는 경제적 행복감이 큰 폭으로 하락함

- 경제적 행복지수는 자산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특히, 1억원 미만의 저액자산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행복감이 모두 평균보다 높았음
- 하지만, 5억 원 이상 자산가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전기대비 모두 크게 떨어졌는데 5~10억원 미만이 전기대비 9.2p, 20억 원 이상도 전기대비 18.4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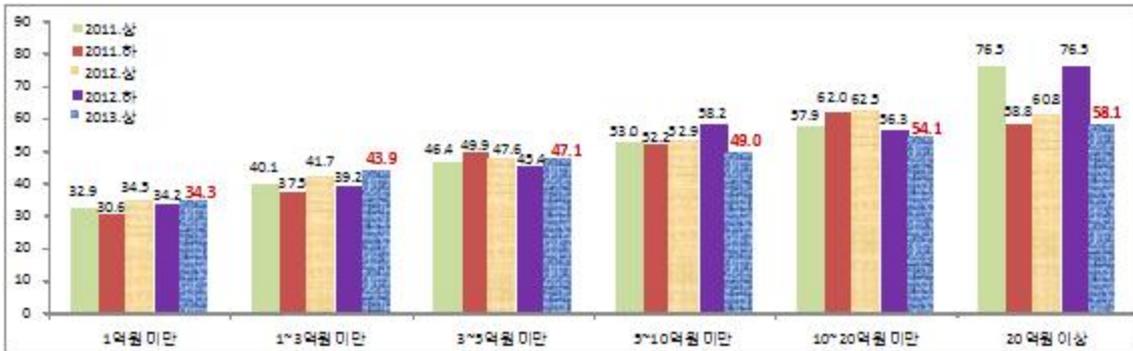
-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자산이 많을수록 낙관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전기대비로도 대체적으로 하락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억 원 이상과 1~3억원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가 계층에서 전기대비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미만		10~20억원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행복지수	34.3	0.1	43.9	4.7	47.1	1.7	49.0	-9.2	54.1	-2.2	58.1	-18.4
경제적 행복예측	120.8	-3.8	127.4	4.4	122.4	-15.8	132.2	-15.8	142.8	-7.2	166.6	6.6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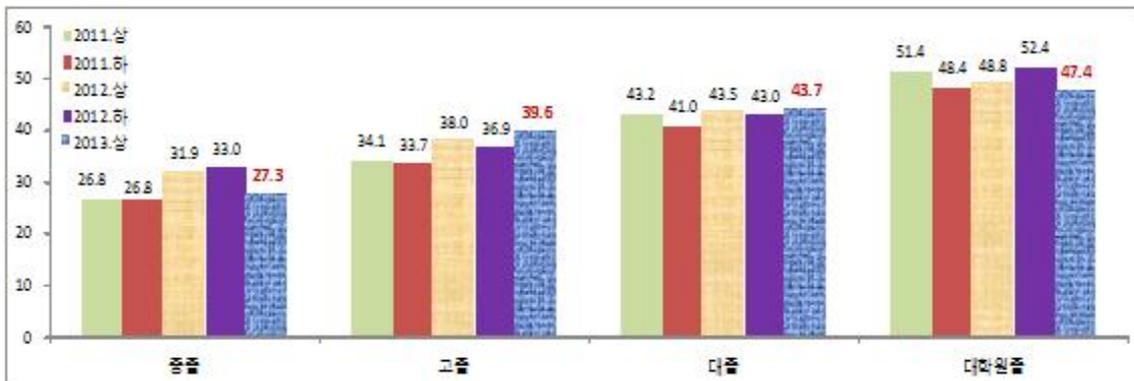
○ (학력별)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여전히 매우 낮음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감도 높은 경향이 지속된 가운데,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매우 낮았음
  - 대학원졸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5.0p 하락했지만 47.4로 가장 높고 대졸 학력자도 43.7로 평균보다 높음
  - 반면, 고졸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39.6, 중졸 이하도 27.3으로 평균대비 낮았는데 중졸 이하 학력자는 전기대비로도 5.7p 하락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고학력자가 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
  -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134.6과 132.0으로 평균보다 높아 미래 경제 상황에 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
  - 반면, 고졸 이하 학력자들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평균보다 낮고 전기대비로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비관적인 태도가 많아짐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행복지수	27.3	-5.7	39.6	2.7	43.7	0.7	47.4	-5.0
경제적 행복예측	84.8	-10.6	118.2	-6.0	134.6	-3.0	132.0	2.0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혼인 상태별)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경제적 행복감이 소폭 상승했지만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비관적으로 변화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기혼자보다 더 높았음

· 경제적 행복지수는 미혼자가 44.5로 전기대비 1.1p, 기혼자도 40.8로 1.0p 상승함. 반면, 이혼/사별자는 전기대비 7.0 하락한 26.1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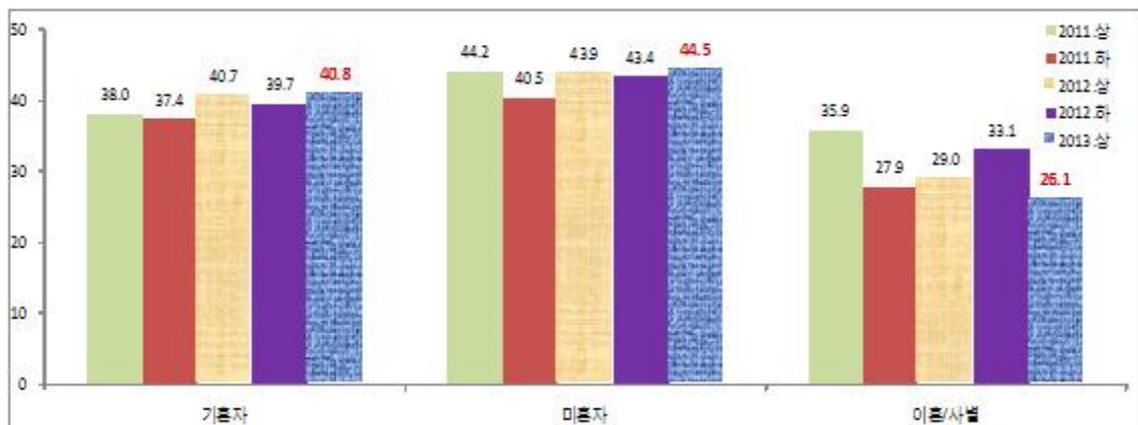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미혼자가 147.2로 기혼자 120.2, 사별/이혼 55.2 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사별 등	
경제적 행복지수	40.8	1.1	44.5	1.1	26.1	-7.0
경제적 행복 예측	120.2	-2.4	147.2	-3.4	55.2	-39.0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별첨3.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명>

####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항목별 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평균 점수임
- 경제적 불안은 반대로 계산.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text{①} + \text{②} + \text{③} + \text{④} + \text{⑤}}{5} + \text{⑥}$$

-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 와 ‘아니다’ 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 가 60% 이고 ‘아니오’ 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2.6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2.1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2.5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1.0	
대외 거래	통관 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39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7	270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5,589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5)	(2.0)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5,319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9)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6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0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